

## 주한미군 취재에서 얻은 값진 교훈 ‘진실 규명의 정신’

**부산일보**

황석하 기자



2019년 10월31일 '감만동(8부대) 미군부대 세균무기실험실 철거 남구지역대책위' 회원들이 31일 오전 부산항 8부대 앞에서 '주한미군 8부대 지구최강 독소, 보톨리눔 반입확인 긴급대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일보)

“아직도 부산에 주한미군이 있나?”

주한미군이 생화학방어시스템인 ‘주피터(JUPITER)’와 ‘센토(CENTAUR)’를 부산항 8부대에 운영하면서 생화학 물질을 반입했다는 기사를 썼을 때 부산 내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반응도 상당했다. 2014년 부산의 주한미군 기지 캠프 하야리야가 반환된 뒤 사람들은 미군도 다른 곳으로 옮겨간 줄 알았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부산항 8부대에 여전히 주둔 중이다. 8부대는 전사가 되면 미군의 병력과 무기, 각종 물자가 들어오는 통로이기도 하다. 사실상 한반도 최남단에 자리 잡은 냉전지역인 셈이다.

그런데 이곳에 단순히 주한미군의 무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유출 우려가 상당한 생화학물질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의혹이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주한미군의 주피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취재하게 된 것은 2019년 내가 속한 부산일보 사회부에서 보사환경 분야를 담당하면서부터다. 주한미군은 주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5년 경기도 평택시 미군의 오산공군기지에서 장비 테스트하다 ‘살아 있는 탄저균이 배달 사고’를 일으켰다. 이듬해 미 국방부가 부산항 8부대에도 주피터 프로젝트를 도입한다는 계획이 보도돼 주한미

군이 인구밀집 지역에서 생화학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8부두 공개 요구 등 지역사회 반발에도 주한미군은 버티기로 일관했다.

나의 부모님께서는 8부두에서 직선 거리로 불과 1km가량 떨어진 부산 남구 감만동에 사신다. 2019년 1월께 부모님 댁에 맡겨놓은 네 살배기 아들을 데리러 가다 8부두 인근에서 내 차를 스쳐 지나가는 미군 차량을 봤다. 순간 주피터 프로젝트도 뇌리를 스쳤다. 혹시 미군이 오산기지에서처럼 부산에서도 탄저균 같은 고위험병원체 시료를 가져와 실험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8부두 주변은 대형 컨테이너 부두에다 수많은 아파트단지까지 밀집해 있는데 미군이 제정신이고서야 그런 위험천만한 행위를 할까?

그날부터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또 8부두 인근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궁금했다. 도대체 8부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이다. 마치 8부두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나의 모든 신경을 빨아들이는 듯한 느낌이었다.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2016년 이후 8부두의 주피터

터 프로젝트 관련 추가로 밝혀진 내용이 있는지 기사를 검색해봤다. 안타깝게도 “생화학실험은 없다”는 주한미군의 앵무새 답변을 받아쓰기한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보다 진전된 내용의 팩트를 다루는 보도는 사실상 없었다.

고심 끝에 8부두에서 벌어지는 일을 취재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취재 아이템과는 다르게 8부두를 작심하고 취재하기까지 망설인 이유는 정보 접근의 어려움 때문이다. 부산일보는 청와대를 비롯한 세종시의 일부 정부부처에 출입기자를 두고 있지만, 주한미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방부에는 출입기자가 없다. 게다가 우리 정부도 잘 모를 수 있는 주한미군의 은밀한 군사 정보를 무슨 용빼는 재주로 알아낼 수 있다는 말인가. 아무리 실력이 출중한 국방부 출입기자라도 쉬운 일이 아니다. 정공법으로 주한미군에 “주피터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싶으니 알려주세요”라고 요청하면 그들이 친절히 설명해줄까?

실제 막상 취재를 시작해보니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정보를 알아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혹시나 해서 남부경찰서를 출입하고 있는 후배 기자에게 경찰이 주



2019년 12월20일 부산 남구 부산항 8부두 내 주한미해군해상수송사령부 브리핑룸에서 센터 프레젠테이션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주한미군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 및 고성능 폭발물 실장 앤디 밀트너 대령, 주한미군 참모장 스티븐 윌리엄스 소장, 국방부 대북정책과장 김도균 소장, 주한미군 의무장교 클린트 머레이 대령. (부산일보)

피터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문의해 달라고 요청해봤다. 큰 기대를 걸지는 않았지만, 역시나 별다른 정보가 없었다. 그러던 중 미국 국방부가 주피터 프로젝트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남긴 문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밤낮없이 구글에서 관련 자료를 검색해봤다. 지난해 사내에서 교육받은 구글 검색 방법을 써먹을 시기가 온 것이다.

우선 JUPITR, PIER8(8부두), USFK(주한미군) 등의 검색어를 넣고, 관련 PDF 파일을 찾기 시작했다. 또 미

국 국방부(depense.gov) 내에서만 검색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제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2019 회계연도 생화학방어 프로그램 예산 평가서’를 발견했다. 놀랍게도 해당 문서에는 미 국방부가 2019년 부산항 8부두에 350만 달러(40억원)의 예산을 들여 주피터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특히 8부두에는 ‘환경탐지평가’ ‘조기경보’ ‘생화학무기 감시 포털 보고’ ‘생화학무기 식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테스트를 지속한다고 한다. 심지어 이 프로젝트는 ‘살아 있는 매개체 테스트(Live Agent Test)’도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정도로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다. 고심 끝에 미국의 '탐사보도협회(IRE)'에 이메일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 혹시 미국 기자들이 군을 취재할 때 사용하는 그들만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다. 그들의 취재 조언을 담은 이메일 답장이 왔다. 구글 검색만 할 때는 몰랐는데, 예산 평가서와 같은 문서는 미 국방부의 '감사관(Comptroller)' 사이트에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음을 새롭게 알았다. 그 덕분에 해당 사이트에서 '2020년 예산 평가서'까지 입수했고,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센토의 실체를 처음으로 보도했다.

센토라는 단어를 처음 봤을 때 쓴 웃음이 나왔다. '생화학 위협을 인식·이해·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Capabilities to Enable NBC Threat Awareness, Understanding, and Response)'의 머릿글자 조합인 센토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반인반마 괴물 '켄타우로스'의 영어식 표현 철자와 일치한다. 주피터 역시 '주한미군 합동정보포털 및 위협인식 통합(Joint USFK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의 약자로 철자가 완전히 똑같지 않지만, 목성이라는 뜻과 함께 그리스 신화의 으뜸 신 '제우스'의

영어식 표현이기도 하다. 세계 최강 군대는 출중한 작명 실력도 갖춰야 하는 모양이다.

이 밖에도 주피터 프로젝트 관련 미국 언론에 보도된 장비 이름을 검색해, 그들이 2014년 7월에도 오산기지에서 탄저균으로 생화학실험을 진행했던 내용이 담긴 '에지우드 생화학센터' 보고서도 입수할 수 있었다. 해당 내용 역시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사화가 됐다.

이런 문서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에 버금가는 충격이었다. 누구나 관심만 있으면 구글 검색을 통해 단번에 찾을 수 있고 기사화할 수 있는 문서였다. 그동안 해당 문서들을 바탕으로 한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의아할 따름이다. 또 주한미군 취재는 정보 접근이 쉽지 않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만 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냉철하게 판단하자면 예산 평가서를 비롯해 내가 보도한 문서들은 주한미군이 부산에서 생화학실험을 하고 있다는 '정황 증거'일 뿐, '직접 증거'일



2019년 12월20일 센토 프레젠테이션이 열린 남구 부산항8부두내 주한미해군해상수송사령부 시료분석실(SAF)에서 주한미군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 및 고성능 폭발물 실장 앤디 밀트너 대령이 시설 안내를 하고 있다. (부산일보)

수는 없었다. 이 때문에 의혹만 잔뜩 제기했지 생화학실험의 실체가 없는 보도라는 지적도 들었다. 물론 의혹제기 보도가 주한미군의 소상한 해명과 기지 공개까지 이끌어낸다면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한 것이겠지만,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나 자신도 실체 규명을 포기할 수 없어 주피터와 센토 추가 취재를 멈추지 않았다. 움직일 수 없는 '태산'과 같은 팩트를 찾기 위해 말이다.

몇 개월 뒤 이번 취재의 분수령이 될 만한 결정적인 문서를 입수했다. 주한미군이 2019년 1월 우리 정부에 통보했던 '비활성화 생물 시험 시료 반입보고(Inactivated Biological Test Sample Entry Report)'였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미 생화학방어 합동참모국

(JPEOCBRND)은 당시 '보툴리눔 독소이드'와 '포도상구균 독소이드', 식물성 독소인 '리신'을 각 112ng씩 국내 4곳으로 나눠 발송했다. 국내 수신처는 부산항 8부두 시료분석실과 전북 군산시 미 공군 기지 제8의료지원대, 경기도 미 오산 공군 기지 제51의무전대,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4곳이었다. 보툴리눔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 분비하는 단백질로 신경조직을 마비시키고 파괴하는 신경독소 물질 중 가장 강력하다. 단 1g으로 100만 명을 살상할 수 있다. 포도상구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균 중 하나다. 리신은 피마자(아주까리)에 함유된 독성 단백질로 리신이 들어 있는 피마자의 씨를 날로 많이 먹거나 주사를 하면 내장 기관 출혈을 일으켜 사망할 수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2015년 탄저균 배달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 시료가 민간 운송사인 페덱스를 통해 반입됐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부산에 주피터 프로젝트 장비를 배치하면서 해당 장비들이 검증된 것이기에 테스트가 필요 없고, 시료 반입은 없다고 수없이 반복했다. 그들은 결국 8부두 인근 주민과 부산시민에게 '헛 공언'을 해온 셈이다. 이어 거짓말 같은 순간이 다가왔다. 그해 연말 나는 주한미군

공보관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8부두를 열고 센토 시스템을 공개하려 하는데 기자 풀단을 구성해줄 수 있겠냐는 제안이었다. 철용성과 같았던 8부두를 그리 쉽게 연다고 하니 믿기지 않았다. 취재 기간 동안 반론 하나를 받으려 해도 며칠이나 걸렸고, 하나하나 한 답변으로 일관했던 미군이었다. 그랬던 그들이 센토 시스템을 보여주겠다고 하니 약간 겁이 나기도 했다. 혹시 그동안 내가 보도해왔던 내용들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 공개 행사를 계획한 것은 아닌가 싶어서다.

지난해 12월20일 긴장된 마음을 안고 8부두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는 시위대를 따돌리기 위해 정문으로 들어가는 대신 8부두 내 우리 군부대를 통해 미군기지로 진입했다. 공개행사의 형식은 기이했다. 첫 순서로 주한미군 장교가 센토 시스템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을 시작했다. 이 시간에는 이들의 설명과 질의응답을 받아 적는 게 허용되지 않았다. 이런 공개 행사를 왜 개최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었다. 두 번째는 야외에 있는 센토 시설을 둘러봤다. 컨테이너 크기만 한 공간 안에 각종 장비가 설치돼 있었다. 이어 마지막 설명회와 질의응답 때가 돼서야 필기가 허락됐다.

사실 일련의 행사들은 그들이 운영하는 센토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보여주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주한미군이 처음으로 부산항에 생화학물질을 반입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는 점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석한 스티븐 윌리엄스 주한미군 참모장이 그들이 국내에 마지막으로 반입한 시료가 부산일보 기사에 나왔던 내용과 일치한다고 시인했을 때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해당 사안 관련 논란이 증폭되자 모든 시료의 국내 반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점도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글을 마무리하는 지금, 지난 1년간의 취재 활동을 돌아봤다. 민감한 내용

2014년 7월 경기도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서 열린 '베벌리 미드나이트 14-03' 훈련 기간 동안 훈련 참가자가 생화학탐지 장비 '필름 어레이'에 고위험 병원체 시료를 올려놓고 분석 중인 모습. (에지우드생화학센터 보고서 발췌)



2019년 12월20일 '8부두 미군부대 세균무기실험실 추방 부산시민대책위' 회원들이 20일 오전 부산항 8부두 미군부대앞에서 생화학무기 실험관련,현장설명회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지고 있다. (부산일보)

을 다뤘지만, 보통 기자들이 부담을 가지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소송 제기 등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다. 그들의 반론도 충실히 실으려 했으나 반론을 아예 거부할 때도 있었고, 기사가 나간 뒤에도 주한미군 사령부, 미 대사관 등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이들은 그들의 공식 입장을 낼 때도 우리 국방부 보도자료에 얹어서 내보낼 때가 대부분이었다. 이렇다 보니 취재 초중반에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주한미군이라는 거대한 집단이 '허상'이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다. 마치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가상현실 같은 것 말이다.

오히려 이번 취재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자기검열'이었다. 기사마다 “북한 공격에 대한 대비용인데 뭐가 문제냐”

“혹시 북한에서 내려온 빨갱이 아니냐”는 식의 댓글이 상당히 달렸다. 물론 상식 이하의 댓글은 무시했지만, 때로는 우리의 유일한 군사 동맹인 주한미군을 계속 비판적으로 몰아세워도 되는지 고민에 빠지기도 했다. 특히 남북, 북미 대화의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까지 날릴 때는 이런 기사를 계속 내보내도 될지 걱정됐다. 겉으로는 천하무적처럼 보이려 했지만, 나 역시 한 반도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남북, 북미 관계 흐름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실체를 파헤치려는 결기가 더 강했기에 취재를 계속할 수 있었다. 언론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진실 규명’. 이번 주한미군 취재를 통해 체득한 진실 규명의 정신을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끝내 지켜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해본다. ♡